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20년 12월 창간 제250호 특집 http://cnmhs.net

PENSION & RESORT MIRVILL
자연과 함께하는 추양첨 힐링타운
미르빌 펜션&리조트
예약실 064-792-2918 모교동문 할인
대표 조 성 민(16회) 010-5402-313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846번지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박대용 편집인 : 이우정 인쇄인 : 한흥교 사무처 : (042)252-5656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난세에도 25회졸업30주년행사, 전국고교동창골프 3위 입상"

〈창간 250호 특집〉 코로나19 이겨내며 경자년에도 동문 역사는 이루어졌다

해마다 그랬듯이 새해가 밝아오면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기 마련이다. 부지런한 흰쥐의 해 경자년을 맞이하여 충남기계공고총동문회와 충기산악회는 1월 11일 토요일 오전에 보문산에서 충남기계공고 3만3천 여 동문과 설송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올렸다. 건강과 가슴 뛰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 중국발 우한폐렴(나중에 코로나19로 명칭 변경)으로 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비상이 걸린 것이다. 나라 간 교통이 차단되고 모두가 마스크를 쓴 채 사람 마나는 것을 기피하는 세상이 되었다.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는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앗아가며 걱정과 근심으로 올해의 마지막 달까지 왔다.

2월 들어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번지자 충기총동문회 84차 이사회가 2월 25일 저녁 모교 총동문회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쓴 채 필수 임원과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간략하게 열렸다.

이어 3월 27일 개최예정이었던 제35회 총동문회 정기총회도 연기를 거듭하다가 8월에서야 비대면으로 홈페이지와 서면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제32회 총동문체육대회는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고 오영안 육군준장(4회)과 임재엽 해군상사(38회)의 동상을 모신 모교 호국영웅동산이 국가보훈처 지원으로 동상을 개보수, 야간조명시설 설치 새롭게 단장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5일 오전 10시 30분 충남기계공고 교정에 위치한 호국영웅동산(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에서 이 학교 동문인 고 오영안 장군 24주기, 고 임재엽 상사(재작년 상사 추서) 10주기 추모식이 봉행됐다.

코로나로 인해 총동문회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음에도 동문들의 협조로 성과를 이루어냈다.

총동문회 골프팀이 경북 상주블루원CC에서 열린 2020 키움증권배 SBS고교동창골프최강전에서 공동3위의 성적을 올려 모교후배 장학금 500만원을 획득했다.

올해로 16회째 열린 골프대회에서 모교팀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출전하여 전종현 단장의 헌신아래 허영준 주장과 차서백, 이문휘 선수의 활약으로 괄목할 성적을 거둔 것이다.

모교 25회 졸업생들은 일생에 한 번 뿐인 졸업30주년기념행사를 앞두고 무척 고심했다.

졸업30주년행사는 진정되는 듯한 코로나가 다시 확산 추세로 돌아서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회 동문들은 지혜를 모아 철저한 준비를 거쳐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6시 유성계룡스파텔 1층 백두홀에서 모교 교장과 총동문회 선후배 등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졸업30주년행사를 치렀다. 25회 동문들은 행사장에는 모시지는 못했지만 은사님들을 조심스럽게 찾아뵙고 감사의 선물을 증정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세상이 어수선한 가운데 철저한 방역을 거쳐 행사를 개최해 모교 동문회 역사를 이어나갔다. 25회 동문들은 총동문회에 500만원의 발전기금을, 모교 후배들에게 500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전달했다.

경자년에는 원하지 않는 일이 또 벌어졌다. 모교 뒤편 인접한 보문산 전경이 바라보이는 동네에 34층 초고층의 아파트가 교육환경을 도외시한 채 추진하고 있어 총동문회와 학부모 등 충기교육가족들이 「문화동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섬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11월 1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전격 승인했다.

동문들은 시교육청의 심의 결과에 크게 반발하여 11월 23일 오후 1시 대전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하여 설동호 교육감과 면담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소식은 TJB등 언론에 보도되면서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동문들은 "모교 교육환경을 말살하는 눈가리고 아웅 하는 작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아파트 건설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너무나 힘들었던 경자년이 가고 신축년 새해가 다가온다. 부디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가 진정되고 일상생활을 되찾기를 바란다. 우리 동문들과 충기 가족들이 건강한 삶으로 서로 웃으며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창간 250호 특집〉

경자년을 보내며(1면 한 해 행사, 2면 총동문회장 송년사, 2·3·4면 경자년 회고, 4면 사모곡, 5면 일선 의료현장에서, 6면 모교 교장 송년사, 6면 모교 주변 전경 사진)

축시 12월의 기도

草野 박익환(시인. 13회)

촛불 하나를 켜고 꿈을 꾼 경자년의 아침
당신은 또 세월을 핑계로 내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할 일이 남아 있기에 하고픈 말이 많은데 잘못 욕심이라고
할까 봐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첫째 조국 근대화의 기수가 일군 자유 대한민국을 원형 그대로 보호케 해 주시고
둘째 한번 설송인은 영혼마저 늘 푸른 동해처럼 멋진 소나무이게 해 주시고
셋째 아무리 슬프고 아픈 눈물도 소중한 경험으로 넉넉한 부자이게 해 주시고
넷째 얄밉도록 미운 세월일망정 예쁜 추억이려니 겸허히 받아들이게 해 주시고
다섯째 용서라는 무거운 짐을 따뜻하게 포옹할 줄 아는 사랑의 소유자이게 해 주시고
여섯째 입과 귀가 있다고 함부로 나서지 않는 조용한 선비이게 해 주시고
일곱째 길고도 먼 세월 속에서도 우정을 변치 않는 친구들께 진정 감사 할 줄 하게 해주시고
여덟째 바다 끝닿지 않는 수평선까지 내 땅인 것처럼 부지런한 농부이게 해 주시고
아홉째 날마다 하루를 지키는 내게 정말 멋지다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이게 해 주시고
열 번째 세상이 다 바뀌어도 동문만큼은 영원하다는 것에 행복한 나를 지키게 해 주소서.

“힘들어 쉬고 가자고 할 때가 힘내어 같이 걸어가야 할 때”

〈박대용총동문회장 송년사〉 중단 없는 동문회, 선후배 모두의 협조결과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새로운 희망으로 경자년 새해를 맞은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의 끝자락에 서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19의 급습으로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힘내시라고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동문회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제35회 총동문회정기총회 등을 서면으로 치르고, 올 가을에 개최예정이던 제32회 총동문체육대회는 부득이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 년 중 가장 큰 행사인 총동문체육대회가 열리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동문들께서 격려의 전화와 발전기금을 내주시어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도와주신 동문들의 성금은 동문회의 중단이 아니라 동문회를 힘들더라도 이끌고 가야하는 당위성을 함께 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건강과 경제 문제 등 여러 모로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심정으로 참고 견디면 새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올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교 25회 졸업생들은 일생에 한번뿐인 졸업30주년기념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사실상 졸업30주년행사는 코로나가 확산 추세로 돌아서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는데도 불구하고, 25회 동문들이 똘똘 뭉쳐 일생에 한번뿐인 전통의 25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를 치른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총동문회 골프팀이 경북 상주블루원CC에

서 열린 2020 키움증권배SBS고교동창골프대회에 출전하여 공동 3위의 성적을 올린 것은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이런 성과는 전종현 단장님과 선수들의 활약에 더하여 동문들의 성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충기 동문 여러분!

우리 충남기계공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문회보 설송소식을 월간으로 이번 12월까지 250호를 발행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서 이 나라 공업발전에 초석을 다진 저력이 있는 분들이시고, 후배들은 전통을 이어받아 옹근 솜씨로 이 나라 공업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충기인들이 그동안 이뤄낸 눈부신 성과와 역량은 이미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도 충남기계공고의 위상을 드높여 왔습니다.

살다보면 큰 어려움이 닥쳐 올 수 있지만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힘들어 잠시 쉬어가자고 할 때가 더욱 힘을 내어 같이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합심하여 뭉치고 견뎌내면 100년을 향하는 충기총동문회 역사의 중단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사태가 진정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우리 동문들은 각종 행사와 모임에서 얼굴을 맞대고 실컷 웃으면서 환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신축년 새해 충기인 여러분의 건강과 온 가정에 행운이 있길 기원합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내포”

이원승(8회. 전 총동문회장, 예비역 육군준장)

기대에 부풀었던 경자년 한 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여자(경자)를 만나, 건강하고 행복하며 근심 걱정이 없기를 바랬지만, 경자가 선물해 준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는 “위기(危機)”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위기란 사전적인 의미로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뜻하지만, “위험”과 “기회”의 뜻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보니, 경자의 선물은 위험한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임진왜란 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험한 고비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기회를 안겨준 이순신 장군처럼,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10년 전에 총동문회장을 역임했던 경험을 토대로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시기에 최선을 다해 준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많은 격려를 부탁합니다.

둘째, 총동문회장과 임원들이 3만여 동문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이를 동문회지를 통해 전파하기 위해서는 발전기금을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총동문회 운영예산은 체육대회 시 동문들과 단체의 성금으로 대부분 충당되는데, 금년도에는 체육대회가 취소되었기에 총동문회 운영이 어려울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총동문회가 새해에도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동문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3만여 동문들과 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 위험을 뒤로하고 새로운 기회가 가득 찬 희망의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 마인드로 미래 준비”

서경원(15회. 우송정보대 보건의료행정과교수)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수선한 가운데, 40년 공직생활을 충남대병원에서 명예롭게 마치고, 현장에서 배우고 익힌 보건의료행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대학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금의 소소한 일상이 참으로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사람이 계획 없이 사는 일은 참으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목적과 목표를 확실히 하였고, 열정적으로 주저함 없이 진행하고, 꼭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처리 과정과 결과물이 축적되어 곧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낮에 일하면서 야간대학을 졸업했고, 40대 중반에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맏아들을 자랑스러워하시는 어머니와 아내를 비롯한 아들 둘과 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름 인격과 품격 위에 자신감 넘치는 업무실력을 더해서, 스스로의 격을 높이는 일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외부와도 소통하고 규모가 다른 곳과도 교류하며, 멀리 보고 함께 가는 여정에서, 직장에서의 성공을 꿈꾸고 노력한 결과 내가 만족하는 높은 위치에도 올라가서 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준비를 잘 해놓았다 하더라도,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모든 꿈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고교 선후배님과 친구들 그리고 많은 지인들의 관심과 조언과 응원이 큰 도움이 된 적도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꿈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도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출발과 발전의 기회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꿈꾸고 계획하고 준비한 노력의 댓가라고 생각합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동문선후배님께서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신축년 새해 충기동문과 가족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동문회보는 동문들 피와 땀의 결과물, 친목과 비전 제시”

〈이우정 총동문회 고문〉 설송소식 창간 250호 축하, 영원한 매개체 기대

우리 모교 동문회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세울만한 것은 동문회보 설송소식을 월간으로 발행한 일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월간으로 발행하여 창간 250호라는 기록을 세우기까지 고비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경자년에 동문회보 발간에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심란한 올해 봄에는 동문회 사상 처음으로 정기총회도 연기되고 올 가을 총동문체육대회도 내년으로 연기하면서 일부 동문들이 예산 감소를 우려하여 동문회보의 잠정적인 중단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선배들이 나서 중단은 곧 단절을 의미한다며 동문회보의 지속적인 발간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더욱 고마운 것은 전국의 동문들이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발전기금을 보내준 것입니다.

우리 동문회보는 지난 1999년 창간호를 발행한 이래 한 번도 휴간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창간호가 발행되면서 각 과별 동문회를 비롯해 직장 동문회, 지역 동문회, 회수별 동문회가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고 봅니다.

최근 아무리 인터텟 신문이 대세라고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활자로 인쇄된 동문회보 설송소식은 또 다른 감동을 받을 수 있어서 기다려진다는 동문이 많습니다. 동문 중에는 창간호부터 매월 수집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자년 올해 모두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가 신축년 새해에는 싹 물러가서 많은 행사들이 열리어 동문회보에서 활발하게 보도되기를 바랍니다. 동문회보 설송소식이 추억을 상기시키고 동문들의 모임이 더욱 활기차도록 친목과 비전을 제시하는 영원한 매개체로서 존속하기를 기대합니다.

신축년 새해 동문들의 건강과 가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100-1=99가 아니라 0, 인간관계 소중”

김희곤(16회동문회 총무. 카마스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삼스럽게 생각 하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99번을 잘하고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100-1=99가 아니라 0이라는 좌우명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직업상 일일이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해주는 고객과 무조건 상대방의 잘못으로 치부해버리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새삼스럽게 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나 또한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타인에게만 엄격하지는 않았는지, 99번의 잘함을 생각하지 않고 한 번의 잘못에 대해 0으로 단정지어 버리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올 한해 경자년을 보내면서 새해에는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럽고 배려할 수 있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문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살면서 가장 값진 것은 바로 인연”

김창국(18회. 인천동문회장)

살아오면서 받은 선물 중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은 바로, ‘인연’이라는 선물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연이 아닌 “진짜 인연”말입니다. 우리네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인연들을 접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인천 동문회원들과의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마음이 통하여, 필요할 때 서로를 다독여줄 수 있는 즐거운 인연들 입니다.

우리 인천 동문회원 여러분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서로의 정을 겹겹이 쌓아가며 맺어온 인연들이 새삼 그립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모임을 전혀 갖지 못했지만 다시금 마주앉게 되면 깊은 사랑과 우정에 말없이 술 한 잔을 기울일 것만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참 고마운 인연입니다. 비록 모임을 갖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는 서로의 마음속에 인천 동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음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송년이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말 그대로를 풀이하면 지난해를 보내며 반성하는 자세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일 뿐이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저는 2020년 올 해의 송년을 “인연”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갖가지 많은 상황에 맞닥뜨리어 때론 당황하고 때론 눈물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여러분과의 인연 덕분입니다. 지면으로나마 뜻 깊은 송년 의미를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인연에 여러분이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행복은 긍정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황경아(21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보내며 올해는 특히 다른 해보다 힘겨웠던 해가 아니였나 생각이 듭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아이들과 우리들의 생활이 크게 변화되고 사회전체가 큰 혼돈이었던 2020년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의 고통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동문 친구들의 위로를 받을 때면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다고 용기가 납니다. 친구들아 고맙고 사랑한다. 그리고 선배님과 후배님들! 우리 충남기계공고 동문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코로나로 힘든 역경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연말이면 한해를 돌아보며 즐거웠던 일과 슬픈 일 그리고 다짐하고 소망했던 일을 아쉬워하며 다음 해에는 꼭 이루리라는 다짐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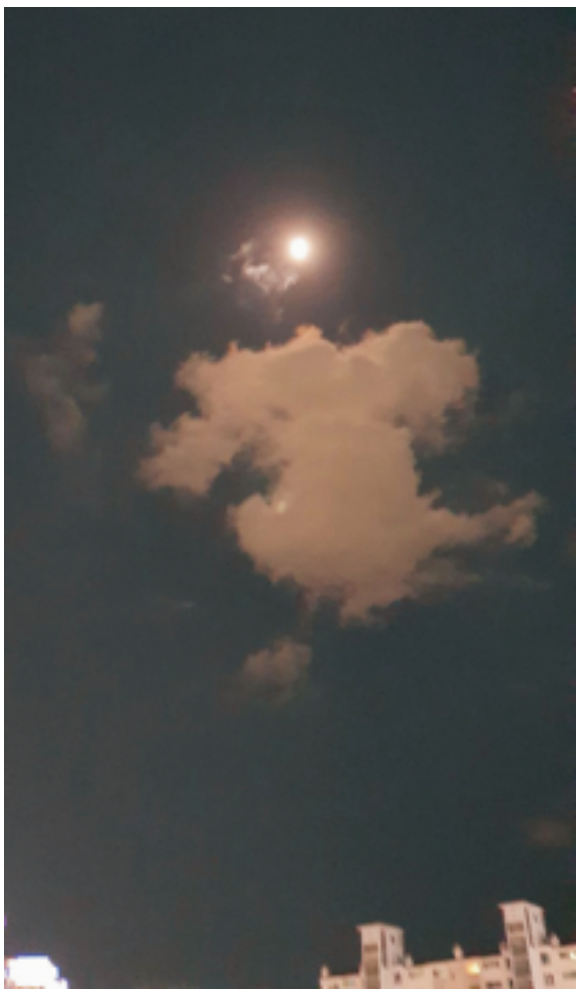
경자년(庚子年) 송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은 연말이 되시길 바라며 신축년(辛丑年)에는 충남기계공고 우리 동문 여러분들의 뜻하신 바 이루시고 행복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소망합니다.

행복은 긍정이 만들어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긍정과 포기를 모르는 동문 여러분! 유지자사경성(有志者事竟成:뜻이 있는 자가 마침내 이룬다.)는 말로 파이팅하자고 외치고 싶습니다.

"자식 위해 헌신하신 95세 울 엄니, 극락왕생 기원합니다"

〈황규성 동문 사모곡〉 힘든 세상 보릿고개 터널에서도 자식사랑 끝없어라



경자년 새 해를 맞이하면서 정초 새해의 꿈으로 힘차게 출발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이 크게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모두 고군분투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변화의 물결 소용돌이 속에서 심신이 지쳐만 가는 세월 중에 연말이 다 되어 올해 95세의 모친이 12월 5일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등 우리 부모님 세대는 먼저 한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지금보다 더 혹독한 전쟁과 사변의 혼란 속에서 보릿고개길 터널의 산증인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고통보다는 오로지 내 자식 행복한 내일을 위하여 온 정성으로 기도해주셨습니다.

나이 60이 넘어서도 내 삶의 시시비비 정 오답의 분별력에 아직도 미완성으로 진행되는 연속방정식 해답을 찾아 달려가는 모모는 철부지 인생길이었습니다. 90대 중반의 병약하시지만 비교적 건강하셨던 어머니는 우리 4남1녀의 등대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고 삶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다 하시어 홀연히 저세상으로 가버리시니 그동안 불효한 일만 생각이 떠올라 가슴이 저려옵니다. 어머님의 상을 치르고 아파트에서 하늘 위 구름을 보면서 허전한 마음으로 불효자식은 '백지장 엽서'라는 글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충기 동문 여러분, 경자년 한해 잘 버티셨습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 새벽 바람 맞으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두 손 모아 기도 하겠습니다.

소원성취 바라기 해맞이 행사는 코로나19 시대로 개최되지 못하는 정초일지라도 충기 동문과 가족님들의 강건한 안녕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 황규성(13회 동문) –

백지장 엽서

울 엄니?
왔다가 다녀갑니다.

인생무상
어느 날 좋은 시 구름타고 왔다가
선바람처럼 사라지네요.

한 살림 부귀영화 꿈으로
한 세상 고진감래 인고의 무지개빛 삶으로
향년 95세 일기로 운명 하신 울 엄니

하늘나라
은하수 화엄 별 사모 아리랑 고갯길
영면으로 낙엽 즈려밟고
선영 백지리에 영면하시고
극락정토 왕생을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
가겠습니다.
2020년 12월 5일 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

불효자식 규성 올림

"조그만 선물로 비대면 연말 송년회 대신"

이정근(30회동문회장.제이케이산업개발대표)

사상 초유의 코로나로 인해 동기들과의 1년이라는 시간이 길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술 한 잔 기울이는 시간들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중간에 코로나가 잠시 주춤한 사이에 정부의 시책을 올곧이 지켜가며 서로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소모임을 통해 5월에 1박 2일 바닷가로 나들이 떠났습니다.

각자의 생업에 전진하며 코로나에 맞춰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하루만이라도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만큼 너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서로 취미가 다른 관계로 9명은 낚시를 즐기고 8명은 골프를 즐기고 날씨도 우리를 반겨주는것 같아 한껏 재미있게 지내고 왔습니다.

이후 다시금 기승하는 코로나로 인해 모임은 하염없이 연기됐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끔씩 개인적으로 만나는 친구들과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도에 지금까지 버텨온 것 같습니다.

12월에는 생업에서 고생하는 회원들에게 가족들과 따뜻한 연말연시 보낼 수 있도록 조그만 선물을 보내 비대면으로 연말 송년회를 대신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모임과 활동을 할 수 있는 날 회원가족들과 정말 재미있는 추억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 날이 기다려집니다.

"기사를 제보해주세요"

각 회수나 단체동문회 소식과 개인동정을 알려주시면 정성껏 게재하겠습니다.
송동문회사무처 편집실 ☎(042)252-5656

"가족들과 떨어져 전염병과 사투하는 의료진 진정한 애국자"

정인호(9회. 강릉의료원장)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돌보며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난리인 가운데 확진 환자의 입원 치료를 전담하는 감염병전담병원 강원도강릉의료원 원장 정인호입니다.(자동차과 9회 졸업)

우연한 기회에 동문회 사무실로 전화를 드렸다가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서 2월부터 조금씩 환자가 발생하다 4,5월에는 대구에서 크게 유행하였고, 8월에는 2차 유행을, 초겨울이 시작되는 11월초부터 3차 유행기에 접어들면서 한파가 한창인 이때 하루에 1,00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의료원은 국가격리병상 17병상을 포함 137병상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으로서 전 병상의 70%를 비우고 코로나-19 확진 환자 50~60명을 입원시켜 치료 후 퇴원시키는 전담병원입니다. 집과 가족을 멀리 한채 하루하루를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 이야말로 코로나 전선의 전사들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코로나-19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기저 질환자나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인 폐의 석회화가 자가호흡을 곤란하게 만들어 종국에는 사망케 하는 무서운 병이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환자와 밀접 접촉 시 전염력이 최대이 므로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가지 않고 거리두기만 실천해도 상당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호흡기로 전파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의정장교로 전후방 군병원에서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공주의료원을 거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7월1부로 강원도로부터 강릉의료원장으로 임명받아 봉직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강릉의료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훌륭한 진료진 초빙을 비롯하여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변화하는 의료원 발전모습을 강릉 시민들에게 보여준 결과 시민단체로부터 특히 충청향우회로부터

정인호 동문이 강릉의료원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내년부터 300병상급 종합병원 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39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병원 증축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비록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일선에서 충기인으로 자긍심과 품격으로 선배, 후배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학교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강원도강릉의료원장으로서 열심히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도 어렵고 힘든 코로나 상황을 꼭 이겨 내시길 바라며 새해에도 동문 선후배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2020년 12월 셋째 주를 보내며

강릉의료원장 정인호 올림

"내년 전국기능경기대회까지 잘 사용할 것"

모교에 무공해살균소독제 등 방역물품 전달

(주)영웅과 레이바이오 회사는 12월 16일(수요일) 오전 11시 모교를 방문하여 (주)영웅 히어로 크린-친환경 무공해살균소독제 20리터 100통(500만원 상당)과 레이바이오 회사의 고체 가글(2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이천구 동문(13회. 경찰 총경 예편)의 주선으로 이루어져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관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바, 내년에 2021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충남기계공고에서 열리기 때문에 방역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달식에는 황의만 모교 교장과 오응수, 이우정 총동문회 고문, 서한수 자문위원장, 한흥교 사무총장, 정찬목 자문위원과 (주)영웅 윤석구 대표, 대한민국 중앙경우회 홀딩스 박종구 전무, 이충무 이사, 김대원 이사, 레이바이오 이승언 전무, 법무법인서울 이천구 고문 등이 참석했다.

이천구 동문은 "모처럼 온 모교에서 내년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건물 개보수공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 모교를 돕는 일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내년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는 모교에 방역물품이 전달되고 있다.

전달된 방역물품은 학교는 물론 방역이 시급환 동문기업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어려운 시기에도 동문들이 도와주시어 감사"

공대성(34회. 디자인라이팅 대표)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동문 선,후배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처음 동문회에 나오기 시작한지는 2006년도 체육대회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듬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끝내고 어린나이에 조명기구 제조업과 전기공사업인 ㈜디자인라이팅을 경영하면서 지역에 인맥하나 없던 저였는데 동문회에 가면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도움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준 선배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도 줄곳 동문회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은 제 가슴속 깊이 생각하며 현재 총동문회 재무국 이사로 전기과동문회 총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뵙고 싶은 동문 선,후배님들을 뵙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도 사회 각계층에서 동문 선,후배님들을 뵙곤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후배를 도와주시려고 힘써주시는 마음에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선배님께는 존경하는 마음 담아 섬길 것이며 후배들에게는 선배님들께 배운 사랑과 관심을 어떻게든 되돌려주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들었던 2020 경자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돌아오는 2021년 새해에는 동문 선,후배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속에서 항상 승승장구하시길 바라며 인사마치겠습니다.

“무심했던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던가”

〈황의만 모교교장 송년사〉 새해 코로나19 종식되어 일상회복 기대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원 여러분과 충기가족 여러분!

인생은 처음 경험해보는 일들의 연속이지만 올해는 유달리 색다른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 해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은 역시 코로나19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라는 중국 속담을 떠올리며, 그동안 무심했던 일상의 평범하고 소소한 일들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깨닫게 해준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은 5월 20일에 2020학년도 첫 등교를 했고, 학교는 1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변화를 꾀했습니다.

2021년 전국기능경기대회의 대전 개최를 앞두고 제1경기장이 된 우리 학교의 낡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5동과 9동 대수선 공사를 시작으로 연결 통로 2곳과 낡은 상태가 심한 13동과 18동 건물을 철거하였고, 파손 상태가 심한 학교 울타리 교체(‘성곽석 위 알미늄 울타리’로 교체), 균열이 가서 토사가 유출되고 있는 축대벽 보강, 굴뚝과 하우스 철거 및 주변 정리, 본동과 11동 건물 도색, 토사가 유출되고 있는 운동장 축대 보강, 명상 숲 조성, 본동과 기숙사 앞 화단 잔디밭 조성, 동쪽과 서쪽의 축

대 위에서 민원을 유발하며 전도 가능성이 있던 거목들 제거, 쓰레기 분리 수거장 가림막 설치 등 안전과 미관을 위해 많은 시설을 보강하고 보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진행하기 어려웠고, 학생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학생들의 기능 습득과 인성 지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태 악화에 따라 취업 전선에도 비상등이 켜진 채 발을 동동거리며 안타깝게 보낸 한 해였습니다.

부디 2021년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평범함 일상이 하루빨리 돌아오고 소소한 일에서 다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원님들과 교육가족의 건강을 빌며 충남기계공고가 명문고등학교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빽빽한 34층 아파트 들어설 경우 보문산 안 보이고 햇볕차단 큰 피해”

문화동8구역주택재개발 건립계획으로 바라본 모교 주변 교육환경 이모저모

문화동8구역주택재개발 건립계획으로 모교 후문을 비롯해 뒷편에 34층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일조권과 보문산 조망권, 소음피해 등이 예상되어 동문들이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TJB 등 방송과 신문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 개발지역에는 대전시교육청 소유 부지 수천평이 포함되어 있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관에서 바라본 대전 중구 시가지

리모델링 중인 강당 건물

기숙사동과 실습동

후문에 인접한 직선거리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

학교는 지금 온통 공사 중이다.

정문 앞 담장도 말끔히 정비됐다.

정문 홍보 게시대

정문 옆 나무 식재

모교 뒷편 농구장 전경. 34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햇빛 차단은 물론 보문산 전경이 완전히 가려지게 된다.

수입 현황

기간 : 2020년 11월 25일 ~ 12월 21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연회비 및 발전기금

상	1	이우철	20,000	자	9	신두섭	20,000	기	14	한경환	20,000
방	2	황인정	20,000	자	9	오경세	20,000	기	16	김석래	50,000
전	3	배정식	20,000	방	11	류승명	100,000	기	16	노승억	20,000
자	3	엄세진	20,000	기	11	송원섭	20,000	기	16	이계천	20,000
전	3	홍명표	20,000	방	11	유재환	20,000	기	16	이언구	50,000
전	4	이준기	120,000	기	12	오승수	50,000	기	16	이재흥	20,000
전	7	김기홍	20,000	기	13	송재길	100,000	전	16	장보환	20,000
화	8	이종웅	20,000	화	13	이상욱	100,000	기	19	최이석	1,000,000
전	8	이정식	50,000	기	13	이천구	120,000	기	21	황희원	20,000
자	9	권오정	20,000	기	14	송수헌	50,000	기	23	강전영	20,000
광	9	박성하	100,000	기	14	유준	50,000	기	33	이재상	20,000
기	9	박영호	100,000	기	14	이황훈	50,000				

단체

25회졸업30주년발전기금	5,000,000
30회동문회	500,000
계룡시동문회	500,000
충심회	1,500,000

회보 광고비

기	18	박종용	50,000
금	18	유병각	50,000
기	18	장영옥	50,000
기	18	장영우	100,000

"동문들 도움에 감사, 내년엔 활성화 노력"

김용만 동문(22회. 세종동문회사무국장) 교육부장관 표창

김용만 동문(22회. 세종동문회 사무국장)이 12월 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용만 동문은 2012년 세종 최초로 교육시민단체인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를 결성해 대표로 활동하면서 고교평준화, 읍면지역 교육격차 해소 등 다양한 교육이슈에 시민 목소리를 담아냈다.

2014년에는 세종교육시민회의 의장을 맡으며 세종시에서 교육거버넌스를 확립했고, 세종시 교육청 읍·면지역 교육발전협의회 의장을 맡아 동 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힘쓰고 있다.

김용만 동문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회원들과 함께 했던 활동을 대표로 표창받은 것 같다"며 "함께 한 회원들과 세종시 교육가족 전부에게 준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읍면지역 학교는 시설적인 부분은 많이 개선됐으나, 정주여건이 동 지역과 차이가 많아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는 학생이 많다"며 "교육청에선 행복교육지원센터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학생의 통학 문제라든가 돌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교육적으로도 소외되는 읍면지역에 관심을 촉구했다. 김 동문은 "읍면지역의 교육환경은 특히 통학 시 교통문제와 돌봄문제가 심각하다"며 "시 차원에서 학생이 적절한 시간에 등교할 수 있도록 통학시간 대 대중교통을 증차하거나 수요응답형 버스 등을 운행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이라고 말했다.

김용만 동문은 세종시동문회의 사무국장을 맡아 동문 간의 친목도모에 힘쓰는 한편 총동문회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동문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김 동문은 "장관상 수상을 축하해 준 동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로 인하여 올해 행사와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년에 코로나를 극복하여 일상을 회복할 경우 동문회 활동을 활발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용만 동문이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고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기념촬영했다.

25회 유경상 동문 안타깝게 숨져, 제주도 출장 중 심장마비로

유경상 25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 추진위원장이 11월 27일 저녁 10시경 제주도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 동기 친구들과 선후배 동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유경상 동문은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6시 유성계룡스파텔 1층 백두홀에서 동기들과 모교 교장, 동문선후배들이 참석한 가운데 25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를 잘 치렀다. 이후 유 동문은 회사업무 차 제주도로 출장을 갔다가 심장마비로 숨졌다. 고인의 유해는 유족과 25회 동기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서구 괴곡동 대전시립추모공원에 안장됐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행복을 열어 가는 길

평소에 관심 없던 사람도
어느 날 부드러운 눈길, 따뜻한 미소로
살며시 건네주는 사탕 몇 알에
가슴이 따듯해 옴을 느낍니다

자주 만난 적 없는 사람이
밝은 미소로 격려를 전해줄 때
가슴속에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줘도
많은 위로를 줍니다

다정한 위로의 말 한마디에도
서로에게 전해지는 따뜻한 느낌이
행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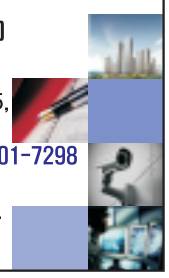
오늘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 따듯한 한마디로
행복을 전해줄 수 있다면
나도 또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내게 행복을 전해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나도 행복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종합정비업
으뜸자동차공업사
자동차검사! 환경심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2번지 (면허시험장)
TEL : (042) 282-1500 FAX : (042) 282-1501 ,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 근로자파견


필 엔 텍
FIL & TECH
대표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9번길 36
TEL. (042)626-8548 팩스. 626-8549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 종 용 (18회)
대전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UMBRO
스포츠의류 umbro
대전 롯데백화점 7층 매장
대표: 김재용(010-4623-5073)

〈김석래(16회 동문) 아들〉

페인트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조색 OK) 도 장 공 사
분체, 액체 열처리도장
제비표페인트 대연상사
제 일 테 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18동 135,136호
TEL:(042) 670-7877, 7233
FAX:(042) 670-7876

전국 꽃배달써비스
미스터플라워
대표 이 용 선 (14회)
010- 4856-7192
대전시 중구 유천로18번길 35 (유천동) 중부종합상가 101호
T. 042) 582-8280 F. 042) 586-8280
농협 : 453026-56-126981

누리상조
★ 매월 납입금 없는 후불방식 입니다.
◈기존 상조회사보다 저렴합니다.
대표: 나 익 성 (기 13회)
010-4433-0444

탐라돌구이
윤 여 갑 (10회)

H.P : 010-5454-1262
TEL : 042-823-8888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07-4
♣대형 주차장 완비♣

CROWN
크라운출장뷔페
대표 이희범 (동문 협찬업체)
결혼식/각종연회/칵테일파티/기업체행사/운동회 및 각종모임/바베큐/생맥주 파티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528번지
전화 : (042) 585-5500 휴대폰 : 010-5462-9919

(주)코핸즈 대리점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주)에어스타 대리점
콤프레샤 주문제작 및 수리 여러 주문기기 일체
한 국 기 계
대표 장 영 옥 (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콤프레샤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 우. 306-754
Tel. 042 · 670 · 8962, 042 · 623 · 8962 / Fax. 042 · 670 · 8963
E-mail : hkmcomp@hanmail.net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53호, 154호

KIA 기아자동차 남선대리점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동문이 되겠습니다."
카마스터 김 희 곤 (16회) 동문차량 전담

TEL : (042) 486-0042
H.P : 010-3300-5838
FAX : (042) 525-4878

미르마르커피
대표 조 성 민 (16회)
Hp 010.5402.3132
강릉 안목커피거리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22
T e l : 033-653-3130
FAX : 033-653-3132
E-mail : mirmarcoffee@naver.com

세무법인 YEE JEONG 이정
稅務法人 以 楨 유성지점
대표세무사
마 수 용 (18회) 010-4506-5089
(국세청 서기관, 북대전, 대전세무서 등 28년 근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비에스타워 506호 (충남대 서문앞)
Tel 042-719-8898 Fax 042-719-8810
신고대리 기장대리 불복청구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

"부모님같이 정성 다해 모시겠습니다"
가화노인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83번15(1층)
☎ 042)638-8828
핸드폰 010-8805-8051
원장: 안도경(이상돈 16회 동문 부인)
중풍, 치매, 뇌졸중 등 거동불편 어르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구강관리

금산 왕대양꼬치 GEUMSAN WANG DAE LAMB

대표
권 경 중 (26회)
[32736]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16
Mobile : 010-3588-4135
예약문의 : 041) 751-2299

동문회보 협찬광고 받습니다.
충기동문들이 애독하는 설송소식에 동문 기업의 협찬광고를 저렴하게 게재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총동문회사무실 대표전화 ☎252-5656

※동문회 운영에 연회비 납부가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정성이 소중합니다. 1년에 한번 내시는 연회비 2만원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납부는 동문회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총동문회사무실 대표전화 ☎252-5656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충기 동문 여러분 힘내십시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옵니다."

- 총동문회 임원 일동 -